

지역 메아리

완주군, 공공비축미 매입 본격 시작

완주군이 공공비축미 매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7일 완주군은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 곡 건조비 매입이 지난 6일 용진을 상운 창고를 시작으로 12월 15일까지 읍·면 지정장소에서 15만4,536포/40kg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수매대상 농가는 건조수분 14~15%로 건조해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13%이하 과건조시 미질이 크게 떨어져 등급을 하향 적용한다. 포장중량은 포대비의 경우 알곡중량 40kg에 포장재 200g을 포함한 40.2kg, 톤배비는 알곡중량 800kg에 톤백포장재 2kg을 포함한 802kg 이상으로 포장 조제해야 한다.

농가에서 보유한 자물에 대한 사전검증을 받거나 검증받은 자물을 이용해 보정 후, 수매에 나와야 중량차이로 인한 손해와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올해 완주군 벼 재배면적은 3,938ha로 전라북도 11만5,398ha의 3.4% 수준으로 배정량은 전라북도 물량의 4.4%다.

/완주=이종복 기자

동진강낙축협, 조사료 유통센터 준공

동진강낙축협(조합장 김투호)은 7일 급구면 옥성리에서 이건설 김제시장은, 나병문 김제시의회장 등 주요인사 및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료 유통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총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준공된 조사료 유통센터는 국내산 조사료의 자금활용을 높이는 한편 김제시에서 생산된 양질의 조사료를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사료가격의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생산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연중 양질의 국내산 혼합조사료를 대포장하여 공급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교월동, 자매결연 도시 방문

김제시 교월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위원 및 공무원 20여명이 최근 자매결연지인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서 열린 기림산 둘레길 축제에 참가해 결연간의 우호관계를 다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도·농간 지역발전과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향후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들은 개막식 참석을 시작으로 하안동 주민대표들과 양지역의 문화, 관광자원 홍보 및 지역 특산물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테라리움, 우드 스피너 만들기, 둘레길 걷기 등 이색적인 체험을 하며 축제에 참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보통신설비 면진장치 도입

완주군, 정보 통신실·CCTV통합 관제센터·지역 전산실 3개소 설치

완주군이 도내 최초로 정보통신설비에 면진장치를 도입한다. 6일 완주군은 지진으로부터 진동과 충격에 민감한 각종 정보통신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실, CCTV통합 관제센터, 지역전산실 등 3개소에 면진장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지진발생 빈도는 증가 추세로 지진으로 인해 정보통신 기능에 마비될 경우 피해규모는 막대하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 사회안전과 국가안보, 복구비용

등 손실이 크게 예상된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정보통신 장비에 대한 선제적 지진방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방문,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다. 그 결과 올 해 하반기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을 도내 최초로 확보했다.

완주군은 지진발생 시 건물붕괴 전까지 장비의 정상운동을 목표로 정보통신실 등 3개소의 이중마루(Access Floor) 위에 면진장치를 설치한 후 그 위에 통신서버 랙, 배터리, UPS(무정

전 전원장치) 등 통신장비를 위치시켜 지진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내진설계 건물은 건물 자체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나 건물 내부에 설치된 장비에는 지진 진동이 그대로 전달돼 그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상황에 미리 미리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재난안전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국가예산 확보 활동 펼쳐

이후천 부시장, 예산국회 방문... 국비 추가지원 건의

김제시 이후천 부시장은 지난 6일 201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취임 후 최전선에서 앞장서 달려온 지난 1년의 마지막 단계인 예산국회를 방문하여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먼저 지역구 김중회 의원실과 도내 예결위원장 안호영, 조배숙, 정은천 의원실과 백재현 예결위원장실 및 정세균 국회의장실 등을 잇따라 방문하여 국가예산 확보 주요대상사업에 대해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마비시 단계까지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안호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비서실장 등과 면담하고 지역 최대 현

안사업인 '김제육교 재가설사업'이 급선 정부예산에 70억원이 반영되었으나 현재 2차선인 김제육교의 양방향 도로가 4차선으로 육교 구간의 병목현상과 사고 위험 증가는 자명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으로 대국민 신뢰 추락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4차선으로 확장 재가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주요사업으로는 지난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 개최시 부족했던 행사장 인프라 조성, 홍보, 해외기업 및 바이어 유인 지원책 확대를 위해 내년도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 국비

2억원 증액과 종자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종자강국 실현을 위한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사업' 타당성 용역비로 국비 3억원 신규 반영을 요청했다.

이후천 부시장은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지속적인 시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정치권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마지막까지 '18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팔레스타인 교수요원, 완주 로컬푸드 배우다

팔레스타인 교수요원(PNSA : Palestine National School of Administration)이 완주군의 로컬푸드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다.

7일 완주군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의 이번 방문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배진환)의 교육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2012년도에 팔레스타인 정부가 우리 정부에 PNSA 설립을 요청해 개설된 교육과정으로, 한국의 국가발전과 열린 혁신 등 우수 행정사례를 공

유하고, 팔레스타인 공무원교육원 설립 후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팔레스타인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교수요원들이 최초로 방문했다.

총 15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완주군을 방문, 완주군의 지역농정 혁신 사례인 로컬푸드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직매장 등을 찾아 현장에서 로컬푸드를 직접 경험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완주의 로컬푸드 시스템이 팔레스타

인에도 보급되기를 바라고, 양국 간 농업분야 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교육생 이삼 다나드나씨는 "완주군과 로컬푸드 직매장인 구이 해피스테이션을 견학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 시스템이 매우 훌륭하고 잘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자국의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매우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오늘 하루 주인공은 나야 나~♪'

완주 용진중, 한마음 축제 성료... 수익금 불우이웃 도와

완주 용진중학교 (교장 고승식)는 최근 '오늘 하루 주인공은 나야 나~♪'라는 주제로 제5회 한마음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학생의 날 열리게 되어 더욱 뜻깊은 마당이었는데, 학생의 날 기념으로 모범 학생에 대한 격려, 학생대표 2명(2학년 이진진, 박승민)이 도중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 낭송으로 시작을 알렸다.

용진 교육가족이 그동안의 다양한 교육활동 결과를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크게 다섯 마당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첫째, 학생의날 홍보 영상 및 영상 제작부 학생들 제작 동영상 시청과 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 마술 공연으로 흥겨운 한마당의 문을 열었다.

둘째, 전시마당으로 교육활동 사진전, 자유학기활동 작품, 교과목로젝트 실적물, 꿈과 끼를 찾아주기 위한 생활미술관 및 진로 동아리 산출물, 셋째, 체육마당으로 아

나바다 나눔 장터, 몸으로 말해요, 초성퀴즈, 우리말 지킴이, 페이스 페인팅, 훌라후프 미션수행, 캘리그래피 만들기, 꽃차 시음 및 판매, 일본어 체험, 넷째, 공연마당으로 개인장기자랑, 용진중학교와 용진초등학교 학부모 공연, 비보이 초청공연 및 학급별 장기자랑, 다섯째, 어울림마당으로 학부모들이 정성껏 준비한 먹거리 장터 운영으로 주먹밥, 어묵, 떡볶이, 꼬치구이 등을 제공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나온 수익금은 연말에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한 오명자 교사는 "행사를 학생들이 주관하여 진행을 하고 교직원, 학부모는 지지해주는 형식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치 역량강화 및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함양, 자기 주도적 미래 탐색 등에도 크게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동제산업, 지평선산업단지 투자 협약

김제시는 7일 시청 2층 시장실에서 (유)동제산업(대표 김용호)과 지평선산업단지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동제산업 김용호 대표이사 외 임원진과 이건설 김제시장 및 임성근 안전개발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평선산업단지에서 새로이 시작하는 기업이다.

(유)동제산업 측은 "(유)동제산업은 국내 최대의 도금조(13m X 4m X 2.3m) 건물을 계획 중이며, 12m H beam까지 도금할 수 있는 규모로서 이런 대형 도금이 가능한 업체는 국내에 극소수

지위를 유지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조선, 철도차량, 각종 산업플랜트, 건축 등 철강을 원재료로 하는 산업에는 모두 응용이연도금이 적용되어 수요가 매우 광범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투자협약은 부지 1만9,836.2㎡(약 6,000평), 투자금액 87억원, 고용 창출 50명으로 김제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건설 김제시장은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때에 김제시에 투자를 결정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유)동제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인 유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팬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 협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스 질기 및 우승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NSL/NSL2) 지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메르티 지역 지휘 음급지치 오일 지령중 지휘 레프팅 가이드 지령 지휘 수상 인명구조요원 지령중 지휘 전)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	---